

우리 동네 '사랑방 갤러리' 생겼어요

광주 효천2지구에 문연 자운갤러리

母子 김정희·오관영 작가 운영
아파트 단지속 유일한 문화공간
전시공간과 미술교육센터 갖춰

2월 청년작가 한동훈 초대전
지역작가 전국 교류전 등 계획



광주시 남구 행암동 효천2지구에서 문을 연 자운갤러리. 전시장과 예술교육센터(왼쪽건물)로 구성된다. <자운갤러리 제공>

“들어기도 되나요?” “구경해도 되요?”
광주가 문화도시라고는 하지만 아직 갤러리나 미술관을 들어갈 때 부담을 가지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말 광주시 남구 행암동(579번지) 상가건물에 문을 연 자운갤러리는 일상에 쉽게 미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조성된 아파트 단지(효천2지구) 속 유일한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은 예술의 거리 등으로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자운갤러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희(여·58) 작가와 아들 오관영(35) 작가가 운영하고 있다. 약 72㎡(22평) 규모로, 전시공간(11평)과 미술교육센터 ‘카메라타’(Cmerata·11평)로 구성된다. 김 작가가 관장을, 오 작가가 교육센터 원장을 맡았다. 갤러리 명은 김 관장의 호에서 따왔다. ‘자운’(慈潤)은 작가, 주민 모두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바람을 담았다. 또 이태리어 ‘카메라타’는 사랑방을 의미한다.
오 원장은 “약 2년 전 효천2지구로 거처를 옮겼는데 주변 문화시설이 전무해 직접 갤러리를 운영해보자고 생각했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었다”고 개관 취지를 밝혔다.
김 관장은 “평소 작가로 활동하며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를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며 “전시 뿐 아니라 사랑방 역할도 하며 예술로써 교류하는 장소다”고 말했다.
특히 김 관장에게는 자운갤러리는 의미가 남다르다. 김 관장은 전남대 예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대학원에서 미학미술사 박사학위를 받는 등 미술이론과 교육을 전공했다. 강원 성화대학 뷰티

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12년 학교가 폐쇄되며 아픔을 겪는다. 당시 마음 상처를 치유해 준 건 그림이었다.
김 관장은 “다른 사람들도 그림을 통해 마음 위안을 얻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갤러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미술교육센터에서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실을 운영 중이다. 수채화, 유화, 스케치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 원장은 “그림이 전시된 공간에서 미술수업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그림을 어려워하는 어른들에 비해 어린이들은 미술을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개관전으로 준비했던 한부철 작가의 ‘근원을 찾아서’에 이어 2월 한달간 한동훈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관계’를 주제로 한 서양화 작품을 전시하는 한 작

가는 풍선과 목각인형을 소재로 삼아 잃어버린 꿈, 희망,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개관 한달째. 상가지역이라 유동인구는 많지만 아직 갤러리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뛰어오세요.” 김 관장과 오 원장은 당분간 홍보에 치중하며 갤러리 운영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전국 갤러리들과 연계해 작가 교류전을 개최하고 작가와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세미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해외 전시 개최를 구상 중이고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작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김 관장은 “작가들에게 가장 미흡한 부분은 자기 홍보”라며 “앞으로 작가들과 함께 지역 미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82-649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춤으로 만나는 창의력

문화전당 10일 ‘댄싱 투 케넥트’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이하 ACC)은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 ‘댄싱 투 케넥트(Dancing to Connect)’(사진)을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에 극장2에서 선보인다.
2006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댄싱 투 케넥트’는 현대무용의 미국적 해석을 통해 전 세계 14세 이상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 제작된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미국, 스페인, 브라질 등 세계 25개국 주요 도시의 많은 청소년 및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광주 지역 청소년과 시민 100여명이 5개 그룹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발레단, 광주 힐링공연단, 송원대학교 무용학과 및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은혜학교,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주교광주대교구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또 배터리댄스컴퍼니 전문 무용수들의 공연도 2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에미상 3회 등 수상경력을 가진 미국의 유명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록 프루트만 등이 직접 연습부터 공연까지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이다.
관람은 무료이며 ACC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선착순 200명에 한해 사전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연·전시·영화 관람권 버리지 마세요

22~25일 메가박스 전대점 책 교환 ‘도깨비 책방’ 운영

‘공연·전시·영화 관람권 가져오면 책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영화 등을 본 뒤 관람권을 지참하면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깨비책방’을 2월 중 진행한다.
최근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출판사들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로, 2월 ‘문화가 있는 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교환 장소는 메가박스 전남대점 등 전국 7개 문화예술 공간이다.
교환 도서는 송인서적 부도로 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본 1인 출판사들이 발

간한 책들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도깨비책방 운영위원회’가 500여 종을 선정해 총 4만 부를 배포한다. 500여 종 도서 목록과 주요 내용은 13일부터 지역서점 포털서비스 ‘서점온’(www.booktown.or.kr)에서 안내한다.
도서 교환은 유료 관람권만 가능하다. 관람권 1장당 도서 1권을 교환해주는 것이 기본이고, 동일인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총 배포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서점온’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도서 교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송료는 무료다. /김미은기자 mekim@

하정웅컬렉션 ‘영혼의 통로 The Face’전



이근표 작 '얼굴'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내달 5일까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오는 3월5일까지 제12회 하정웅컬렉션 ‘영혼의 통로 The Face’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동강 하정웅 컬렉션 총 3700여점 중 초상화, 자화상, 인물 캐리커처를 비롯해 신과 정령을 형상화한 미술공예 가면(假面) 등 123점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작은 20세기초 피카소와 교류했던 마리 로랑생, 전경자, 이만익, 최영림, 벤 산, 조르주 루오, 헨리밀러, 전화환, 이근표 작품 등이다. 전시는 다양한 인물 개성과 감정이 드러나는 자화상과 여인상, 가족도, 부부상, 중

교화 등 주제별로 작품을 구분했다.
전경자의 석판화 ‘여인’은 얼굴 가득 머금은 웃음이 돋보이고 이근표가 그린 작품 ‘얼굴’은 캔버스에 15개 구획으로 나눠 인생을 표현했다. 또한 인간의 희노애락과 사회 풍자, 오곡풍년, 장수의 축복, 가문과 자손번영, 원령 등을 달래는 각 문화권의 탈 등 예술 작품 속에 담긴 얼굴의 상징적 의미와 영혼의 세계를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다.
한편 미술관은 올해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하정웅컬렉션 명품 100선’을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이강하·도춘신 영복 추모전, 한국 추상미술전을 열 계획이다. 문의 061-470-68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관내면 18)
아프리카 쇼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